

문학이란 무엇인가 — 춘원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

송 현 호*

요약

본고는 춘원이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글쓰기를 했으며, 그에게 민족이나 문학은 무엇이었는지를 그의 삶과 연계시켜 살펴본 글이다. 문학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천착했던 흔적은 그의 삶과 글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가 「文學이란 何오」에서 던진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문학의 위기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유효하다.

춘원은 제1차 일본 유학 중에 일본인들로부터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차별받고 멸시받으면서 자신과 조선인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글쓰기에 전념했다. 이 시기의 글 가운데 「혈누 - 히랍인 스파타쿠스의 연설」, 「옥중호걸」, 「사랑인가」는 춘원의 당시의 행적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이들에서 춘원은 자신과 철창에 갇힌 호랑이 그리고 로마의 검투사를 동일시하면서 자유롭게 평등하고 사랑받으려는 욕망을 글쓰기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춘원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춘원은 오산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남강의 고향인 용동의 모범촌 건설에 헌신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블라디보스토크와 차타에 머물던 춘원은 억압당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조선인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농촌계몽운동이 필요함을 절감하며, 조선인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모범촌을 조성할 기회를 한다. 이 시기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하면서 쓴 글로는 「文學이란 何오」와 「무정」이 있다. 「文學이란 何오」에서 민족문학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글쓰기에 전념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춘원은 도산의 사상을 수용하여 『무정』을 발표하면서 제국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애썼다.

1921년 4월 조선으로 귀환한 춘원은 글쓰기에 전념하여 수많은 글들을 신문과 잡지에 게재하였다. 춘원이 글쓰기에 전념한 이유는 ‘읽을 것을 가지지 못한’ 조선의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조선인에게 읽혀지어 이익을 주려’ 하는 것이고, 자신이 소설을 쓰는 근본 동기가 ‘민족의식, 민족애의 고조, 민족운동의 기록, 검열관이許하는 한도의 민족운동의 찬미’라고 밝히고 있다. 1938년 이전까지는 검열을 의식하여 자신의 민족의식을 애써 감추기도 하고 검열을 의식하고 집필했지만 연재가 중단되거나 출판 불허 판정을 받기도 하면서 민족담론의 글쓰기를 계속한다. 그런데 이 시기의 글에서는 민족담론은 발견할 수 있어도 국가담론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임시 정부를 염두에 두고 국권 회복이나 독립에 대해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조선에 정주하면서 검열을 의식하여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주제어: 평화, 이주, 독립, 민족의식, 글쓰기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개인의 발견과 이주자의 글쓰기
3. 민족의 발견과 민족의식을 노출한 글쓰기
4. 검열의 의식과 민족의식을 감춘 글쓰기
5. 결론

1. 문제의 제기

최근에 삶의 위기가 문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책을 보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책을 구매하여 소장하던 풍속도 사라지고 문학의 역사성만이 중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매체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마셜 맥루언(『*Understanding Media*』, 1964)이 활자 문화의 종말과 영상매체 시대의 도래를 선언¹⁾했지만 미디어의 변화를 창작 환경에 반영하여 영화를 보는 느낌을 주는 소설이나²⁾ 음악을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이³⁾ 등장하여 활자문화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문학의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망국의 상황에서 억압 받고 차별받으면서 생존에 위협을 느낀 신진사대부들이 소설개혁론을 들고 나오고 춘원이 민족 계몽을 위해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의 위기감은 오늘날에 비해서 강도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학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천착했던 흔적이 춘원의 삶과 글에는 잘 나타나 있으며, 춘원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文學이란 何오』를 『매일신보』(1916.11.10.-11.23)에 연재하기도 했다.

이재선은 춘원의 문학을 ‘심미주의의 표방보다는 문학의 현실 개량이라는 공리적인 효용주의에서’ 시작한 것으로 평가하면서,⁴⁾ 최근 춘원의 문학론의 원천과 형성을 여덟 개의 물음과 해답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근대문학과 문학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동서의 영향사적 접근 방법으로’ 해명하려고 한 것으로 지금까지 일반화된 주장이다.⁵⁾ 김윤식은 고아인 춘원이 ‘사랑

1) 마셜 맥루언, 박정규 역, 『미디어의 이해』, 박영출판사, 1997, 44면.

2) 송현호, 『영상매체의 발전과 소설의 변화』, 『현대소설연구』 11, 1999, 27-42면.

3) 장미영, 『소설과 미디어콘텐츠의 상호매체성』, 『국어문학』 52, 2012, 266면.

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4, 201면

기갈증 콤플렉스'에 걸려 정신적 구원을 받기 위해 정육을 강조하였다고 했고⁶⁾, 한계전 등은 춘원의 문학에 나타나는 정적 분자나 정적 만족을 사랑이나 연애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⁷⁾ 필자는 1980년대 후반 춘원에게 문학은 무엇이며 전시대나 동시대 문학과 춘원의 문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려고 시도한 바 있다.⁸⁾ 학계에 일반화된 이식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현대소설론의 형성을 우리 소설의 내적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개진하였으나 춘원의 문학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모하고 있음을 간과했고, 이주담론에 주목하지⁹⁾ 못하여 작가의 체험과 문학의 관계를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

춘원은 일본 유학 중 억압받고 차별받고 사랑받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부터 나라 잃은 조선의 고아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내면

-
- 5) 이재선, 『이광수 문학론의 원천과 형성』, 『춘원연구학보』 4호, 2011, 12-24면.
- 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①, 한길사, 1986, 220면.
- 7) 한계전 박호영 송현호, 『문학의 이해』, 민지사, 1987, 293-295면.
- 8) 송현호, 『한국근대소설론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1.
- 9) 이언홍, 『『유정』에 나타난 이주와 '정(情)'의 연구』, 『춘원연구학보』 8, 2015, 109-134면.
- 최선호, 『『무정』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춘원연구학보』 8, 2015, 83-108면.
- 서은혜, 『이광수의 상해, 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스트성』, 『춘원연구학보』 9, 2016, 223-256면.
-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2016, 26-37면.
- 송현호, 『『삼봉이네 집』에 나타난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춘원연구학보』 9, 2016, 170면.
-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북』, 2016.10, 726-735면.
- 송현호, 『춘원의 『사랑인가』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연구』, 『韓國學報』, 2017.1, 3-29면.
-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65, 2017, 111면.

에서 끌어오르는 민족의식을 문학에 담기 시작했다.¹⁰⁾ 러시아에 이주해서는 조선인 이주자들을 위해서 민족담론을 생산하고, 상해에 이주해서는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 사장 겸 편집인을 하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은 글들을 서술했다.¹¹⁾ 조선에 귀환해서는 총독부의 강요로 연재가 중단되거나 출판 불허 판정을 받으면서까지 일관되게 조선인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글쓰기를 계속했다.

민족계몽운동으로 일관하던 춘원은 1937년 동우회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 대일 협력을 했다. 자신의 전향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춘원 본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춘원은 해방 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친일을 했고, 민족을 위해 자기희생을 했다고 변명했다.¹²⁾ 『나의 고백』에서 춘원은 조선인이 시국에 협력하여 육만 먹은 전례를 최린, 최남선, 윤치호를 통해 잘 알고 있었지만 민족주의자인 자신의 전향이 총독부의 최대의 관심사였기에 자신의 희생으로 동포의 희생을 덜고 민족의 고난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일 협력을 한 것이라고 했다. 대일 협력은 민족의 반역자로 평가받을 소지가 다분하여 춘원은 ‘민족’을 위해 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¹³⁾

춘원의 친일이나 민족담론은 문제적인 영역임에 틀림없다. 춘원이 남기고 간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우리는 그의 앞에 놓였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선택한 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왜 끊임없이 이주를 했으며, 미국으로 가려고 한 것일까? 이형식을 시카고대학으로 유학시켜 상상적 이주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는 억압을 받고 검열을 받으면서도 왜 끊임없이 글쓰기를 한

10)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앞의 책, 111면.

11)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앞의 책, 26-37면.

12)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의 이주담론 연구』, 태학사, 2017, 92면.

13) 『이광수전집』 7, 우신사, 1979, 278-279면

것일까? 그에게 민족과 문학이란 무엇이었을까? 그가 1914년 여비를 마련하여 미국으로 이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921년 조선으로 귀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은 1938년 대일 협력 때문에 제기된 의문들이다.

춘원이 국내외의 여러 곳으로 이주를 하고 그의 소설적 인물들을 이주시켜서 얻고자 한 바가 무엇일까를 밝힐 수 있다면 그에게 문학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평화를 얻을 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평화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글쓰기에 전념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춘원이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글쓰기를 했으며, 그에게 민족이나 문학은 무엇이었는지를 그의 삶과 연계시켜 살펴보려고 한다.

2. 개인의 발견과 이주자의 글쓰기

홍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조선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던 일제는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다가 갑오농민전쟁에 참전하여 농민군을 격퇴하면서 조선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1896년 인천에 미두장을 설립하여 조선의 쌀을 가져가 일본은 자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한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에는 조선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수많은 토지를 몰수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이주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분배했다. 또한 식민지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혹한 지세를 부과하여 민족자본을 해체하였다.¹⁴⁾ 미두장을 통해서 조선의 쌀을 빼돌리던 것도 모자라

14) 송현호, 앞의 책, 16-19면.

공출이라는 미명하에 겨울을 나기 위해 남겨놓은 쌀마저 빼앗아 일본으로 가져가고 전선으로 보내 군량미로 사용하였다. 심지어 조선인들을 간도로 이주시켜 논농사를 짓게 하여 중국인과 갈등을 조장하고 만보산사건을 유발하여 만주사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일제의 간계로 조선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행동이 거침없이 행해졌고, 중국인들은 분개하여 조선인과 독립운동을 하는 임정요인들까지 비판하기 시작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는 만보산사건이 일어나던 당시의 상황과 흡사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면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은 사드배치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겨운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예측불허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만보산사건으로 조선인들에게 등을 돌린 중국인들의 마음을 일순간에 돌려놓은 것은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이봉창 열사가 일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이었다. 아직도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독도와 위안부들에 대한 망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이나 자국의 이해득실로 북핵문제를 풀려고 하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뿐이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민족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선인들은 결코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춘원은 어린 시절 정주군에서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이사를 빈번하게 다녔고, 조실부모하여 어려서부터 정주 지역 동학당 책임자인 박찬명의 서생 노릇을 하였다. 또한 동학조직원들에게 비밀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지대도’를 도모하는 동학의 정신을 배웠다. 춘원은 일본 관현의 동학교도 탄압으로 1904년 경성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경성에서 그가 믿을 곳은 동학교당밖에 없었다. 막노동과 심부름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동학의 일을 하던 춘원은 손병희의 「삼전론(三戰論)」의 영향을 받아 유학을 결심한다.

첫째는 인전, 즉 사람의 싸움이요, 둘째는 언전, 즉 말의 싸움이요, 그리고 끝으로 셋째는 재전, 즉 재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잘난 사람이 많고 말을 잘하고 재물이 많은 자는 이기고 그것들이 없는 자는 진다. 그런데 잘난 사람이 많게 하는 방법은 공부에 있고 --- 중략 --- 교육과 산업으로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는 것이었다. 나도 지금 공부하러 떠나는 길이었다.¹⁵⁾

『나의 고백』에는 춘원의 향학열과 유학의 배경이 잘 드러나 있다. 춘원은 1905년 손병희의 추천으로 大城中學에 입학하였다. 손병희는 이용구의 스승으로 동학당의 실세였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다. 실세 역할을 하던 이용구는 진짜 실세가 되기 위해 스승을 배신하고 동학도인으로 조직된 진보회를 일진회와 통합하여 친일 단체로 탈바꿈시켰다.¹⁶⁾ 친일파 이용구와는 무관하게 손병희의 추천으로 유학을 한 춘원은 학비 조달이 여의치 않자 11월에 귀국한다. 혹자들은 일진회의 유학생이라는 점에서 춘원을 이용구와 연관시켜 친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용구가 아닌 손병희의 추천을 받은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성에서 막노동을 하여 학비를 모은 춘원은 1906년 3월 大城中學에 복학하였다. 고아 소년인 춘원은 어려운 이주 생활을 하면서도 글쓰기에 전념했다.

1908년 홍명희, 문일평, 안재홍 등과 소년회를 조직하여 『신한자유증』을 발간하고, 국내외의 잡지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춘원은 이

15) 『이광수전집』 7, 221-222면

16) 위의 책, 222면

시기에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대」(『태극학보』 21, 1908.5), 「수병투약」(『태극학보』 25, 1908.10), 「혈누 - 희랍인 스파르타쿠스의 연설」(『태극학보』 26, 1908.11), 「사랑인가」(『白金學報』 19, 1909.12), 「옥중호걸」(『대한홍학보』 9, 1910.1), 「今日 我韓青年과 情育」(『대한홍학보』 10, 1910.2), 「어린 犠牲(외국소년의 과외독물)」(『소년』 2, 3, 5, 1910.2-5), 「무정」(『대한홍학보』 11 12, 1910. 3-4), 「특별기증작문」(『부의 일본』 2, 1910. 3), 「문학의 가치」(『대한홍학보』 11, 1910.3), 「우리 영웅」(『소년』 3.4, 1910. 4), 「일본에 재한 아한유학생을 논함」(『대한홍학보』 12, 1910.4), 「여행의 잠감」(『신한자유중』 3, 1910.4)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혈누 - 희랍인 스파르타쿠스의 연설」, 「옥중호걸」, 「우리 영웅」, 「사랑인가」는 당시 춘원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왜 글쓰기를 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혈누 - 희랍인 스파르타쿠스의 연설」은 로마의 식민지 그리스 출신인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자유를 찾기 위해 동료들에게 연설을 하여 반란을 선동한다는 내용이다. 춘원이 영화를 보고 정리한 글로 그의 최초의 글쓰기가 애국계몽기의 역사전기소설을 창작한 신채호나 박은식 등과 마찬가지로 번역이나 번안에서 시작했음을 짐작케 한다.¹⁷⁾ 「옥중호걸」은 일제의 부당한 조선 침략에 ‘항거하다 자유를 빼앗기고 투옥당하여 울분을 곱씹는 선구자의 모습’¹⁸⁾을 철장에 갇힌 호랑이로 서술한 우화적 서사시이다. 옥에 갇혀 있는 호랑이의 위엄과 용맹스런 호랑이와 노예적인 개, 말, 소 등의 대비 그리고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투쟁하자는 결의를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다.¹⁹⁾ 「우리영웅」은 왜구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조

17) 하타노 세츠코, 최주환 역,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푸른역사, 2016, 79면.

18) 김용직, 『시각과 해석-한국현대시 이렇게 본다』, 2014, 348면.

19) 『대한홍학보』 9호, 1910.1.20, 29-32면.

국을 수호하기 위한 ‘충무공의 우국충정 하는 모습’과 활동상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는 시이다.²⁰⁾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상황에서 일본과 싸워 이긴 바 있는 세계해전사의 영웅인 이순신을 끌어다가 민족적 패배감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나마 승리감을 맛보려고 한 목적이 있었던 듯하다. 『사랑인가』는 조선인 학생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가 외면당하고 극심한 절망감에 철길에 누워 ‘십육 억여 인류 중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 탄식하면서, ‘한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다’고 절규하는 내용이다.²¹⁾

춘원은 왜 자유를 찾기 위해 동료들을 선동하는 노예 검투사, 자유를 잃고 철장에 갇힌 호랑이, 왜구의 침략에 맞서 우국충정하는 이순신, 이국에서 외국인 학생이라고 차별당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조선인 학생을 소설화한 것일까? 『사랑인가』의 문길은 춘원의 투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문길은 ‘식민지 당대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정조에 대한 작가의 가치관을 공유하고자 하는 실제 저자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²²⁾ 있어서 작가를 연상시켜주는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작가라기보다는 함축된 작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춘원과 아마자끼 도시오의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아마자끼 도시오의 『크리스마스 전날 밤』²³⁾에는 자신이 동경하는 여성이 이보경에게 연애편지를 보낸 사실을 계기로 일본 학생은 ‘연인을 조선인, 그것도 혼혈아 따위에게 빼앗기는 것은 일본인으로서 커다란 치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²⁴⁾ 이로 미루어 아마자끼 도시오는 대부분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다.²⁵⁾ 그렇다면 춘원은 문길을 통

20) 김용직, 앞의 책, 346면.

21) 『사랑인가』, 『문학사상』, 1981.2. 445면

22)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24면.

23) 『帝國文學』, 1914.1.

24) 하타노 세츠코, 앞의 책, 84면

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에서 가난한 고아라는 이유로 온갖 옥설과 수모를 견디면서 살다가 일본에 유학하여 민족적 차별을 받고 억압 받으면서 자신이 조선의 고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문제가 자신에 국한되지 않고 조선인 이주자들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투옥된 안중근이나 로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검투사는 본질적으로 모두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다가 좌절하는 사람들이다. 춘원은 이들의 삶을 통해 당시 조선과 조선인의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사랑받고 싶은 조선인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²⁶⁾ 춘원은 문학이 ‘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과 사상 그리고 감정을 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²⁷⁾ 이 점에서 본다면 춘원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3. 민족의 발견과 민족의식을 노출한 글쓰기

1910년 3월 메이지학원을 졸업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춘원은 오산학교에서 남강 이승훈의 인정을 받아 ‘학교의 중책을 맡’고 용동에서 ‘야학과 동회 일에 헌신’했다. 용동은 안창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선에서는 처음 동회 조직이 만들어지고, 민족교육과 애국운동이 전개된 모범촌이다.²⁸⁾

25) 송현호, 앞의 책, 51면.

26) 위의 책, 37-54면.

27) 송현호, 『한국근대소설론연구』, 111면.

28) 윤홍로, 「『흙』과 민족갱생력」, 『춘원연구학보』 2, 2009, 53-55면.

1911년 신민회사건으로 남강을 잃고 동료교사들이 떠나간 학교에서 바이런의 시와 톨스토이의 휴머니즘에 경도된 춘원은 교회와 충돌을 일으킨다.²⁹⁾ 1913년 11월 학교를 그만두고 무전여행을 떠난 춘원은 1914년 1월 상해에서 신규식으로부터 미주 『신한민보』의 주필로 임명받았다.³⁰⁾ 그러나 여비를 구하지 못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면서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은 시와 논설문을 『권업신문』에 연재한다. 1914년 6월 『대한인정보』의 주필을 맡은 후에는³¹⁾ 민족의식을 담은 글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춘원이 목격한 조선인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에 온 사람들이었지만 노예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비애를 감당하기 어려워 당시 국내에서는 금기시되던 독립이나 일제에 대한 비판을 거리낌 없이 구사하고 민족의식이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리 잡고 사웁니다 : 노동하시는 여러 동포들에게』에서는 조선인 이주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으며,³²⁾ 『본국소문 : 청년들은 목자 잃은 양-굴레 벗은 망아지』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한 한반도의 토지 수탈과 조선인의 만주 이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³³⁾ 『우리 주장』에서는 적국에 패하여 노예처럼 살다가 나라를 되찾은 사례를 월나라와 서구의 예를 들어 조선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³⁴⁾ 『한인 아령 이주 오십 년에 대하여』는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를 조국을 ‘빼앗기고 이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쫓겨 가는’ 줄어드는 실로 ‘부끄럽고 불쌍한’ 이주라고 밝히고 있다.³⁵⁾ 이 당시의

29) 김윤식, 앞의 책, 331-332면.

30) 김원모, 『자유꽃이 피리라』, 철학과 현실사, 2015, 101-103면.

31) 위의 책, 110면.

32) 위의 책, 113-114면.

33) 송현호, 앞의 책, 62-63면.

34) 김원모, 앞의 책, 129-130면.

글에서 주목할 것은 해외 이주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조선의 흥망성쇠와 관련지어 심각하게 토로하고 있는 점이다.³⁶⁾

이들을 「농촌계발의견」(『대한인정교보』 9, 1914.3.1), 「모범촌」(『대한인정교보』 11, 1914.6. 1), 「용동」(『학지광』 8, 1916.3.4), 「농촌계발」(『매일신보』, 1916.11.2- 1917.2.18) 등과 연계시켜보면 당시 춘원이 용동 체험과 러시아 체험을 바탕으로 모범촌을 조성하여 조선인의 해외 유출을 막고, 조선인들만의 유정한 사회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흙」은 이러한 생각들이 정리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이 동맹국의 승리로 끝나자 춘원은 서둘러 제2차 유학을 떠난다. 와세다대학에 재학하면서 춘원은 「어린 벗에게」(『학지광』 8, 1916.3), 「크리스마스밤」(『학지광』 8, 1916.3), 「文學이란 何오」(『매일신보』, 1916.11.10-11.23), 「무정」(『매일신보』, 1917.1.1.-6.12), 「천재야! 천재야!」(『학지광』 12, 1917.4), 「소년의 비애」(『청춘』 8, 1917.6), 「개척자」(『매일신보』 1917.11.10.-1918.3.15), 「오도답과여행」(『매일신보』 1918.6.29.-9.12), 「방황」(『청춘』 12, 1918.3), 「윤광호」(『청춘』 13, 1918. 4), 「자녀중심론」(『청춘』 15, 1918.9) 등을 국내의 신문과 잡지에 발표하였다. 1919년 2월에는 「민족대회 소집청원서」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끝까지 일제에 투쟁할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였고, 1920년 2월 17일에는 『독립신문』에 「독립군가」를 발표하였다.³⁷⁾

이 시기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가장 잘 드러난 글로는 「文學이란 何오」와 「무정」이다. 「文學이란 何오」에서 춘원은 문학의 목적이 정의 만족에 있음을 재삼 강조하면서 정을 만족시켜

35) 송현호, 앞의 책, 64-66면.

36)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앞의 책, 26-33면.

37) 위의 글, 33-37면.

주는 과정에서 처세와 교훈, 선행의 근원인 동정심 유발, 타락의 예방, 품성의 도야와 지능의 계발 등의 부수적인 실효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신적 문명을 전하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 민족문학이며, 문학이 없는 민족은 관습이나 구비로 전승되는 야만적이고 미개한 민족이기에 조선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후대에 전할 유산을 만들어내어 민족문학을 수립해야 하고, 국문을 사용하여 신정신적 문명의 창작에 전념하여 우수한 문학유산을 많이 전해야 한다고 했다.³⁸⁾ 그런데 조선에는 과거제로 인하여 전설적 문학, 중국의 번역문학, 시조와 가사만 있을 뿐이고, 국문소설도 재료를 중국에서 취하여 조선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여 후대에 전할 유산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³⁹⁾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국민문학을 전범으로 삼은 것이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가 민족문학을 정립하여 후대에 전하기 위해 글쓰기에 전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무정』에서는 도산의 사상을 수용하여 교육구국론을 내세우고 있다. 도산의 전도사라 할 수 있는 춘원은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교육하여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자립 갱생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조선의 페스탈로치로 만들기 위해' 이형식을 교육학의 요람인 시카고대학으로 유학을 보낸다. 언드우드가 미국의 페스탈로치였다면 도산이 조선의 페스탈로치라고 생각한 춘원은 이형식을 설정하여 도산의 사상을 실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산과 춘원의 미국 지향성은 '조선의 변혁과 조선인의 계몽에 필요한 선진화된 교육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구체화된다. 도산은 무정한 사회인 조선을 유정한 사

38) 「문학이란 하오」, 『매일신보』, 1916.11.15.

39) 위의 글, 1916.11.23.

회로 만들려고 한 것이며⁴⁰⁾, 도산의 실력양성론이나 사상은 언드우드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⁴¹⁾

이 시기에 발표한 글들에는 일본이나 조선이 아닌 블라디보스토크, 치타, 상해 등과 같은 이주지에서 쓴 글들이어서 검열을 의식하지 않고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독립의 불가피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에게 일본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결코 아니었다. 춘원은 국력이 약하여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오나라에 점령당했다가 독립한 월나라처럼 혹은 패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이탈리아처럼 식민지에서 벗어날 날이 가까운 날에 도래할 것이라 굳게 믿고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상해 임시 정부에 있을 때 국내의 지식인들이 상해 임시정부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데 불만을 토로한 것도 일제에 순종하거나 패배에 져서 사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⁴²⁾

4. 검열의 의식과 민족의식을 감춘 글쓰기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다가 도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춘원은 상해로 찾아온 허영숙과 1921년 4월 조선으로 귀환한다. 당시 춘원의 귀환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많다.⁴³⁾ 귀

40) 방민호, 『무정 독해의 국면들과 무정·유정의 사상』, 『춘원연구학보』 10, 2017.6, 59-64면.

41)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앞의 책, 111-116면.

42) 송현호, 앞의 책, 71-72면.

43) 2017년 3월 16일 아시아연구포럼(AAS)에서 춘원의 막내딸 이정화 박사로부터 세간의 풍문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춘원과 같이 지내기 위해 병원을 상해에 개업하려고 간 허영숙이 일본 고위관리가 발급한 여행허가증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밀정 혐의로 체포령을 내렸고, 이를 알게 된 춘원이 허영숙을 보호하

국 즉시 검거되어 구속되었어야 마땅한 임시정부 인사인 춘원이 선천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난 일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었다. 이 일로 춘원은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귀를 닫고 글쓰기에만 전념했다.

1922년 5월 『개벽』에 발표한 「민족개조론」은 춘원이 글의 서두에서 암시한 바와 같이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일맥상통한 생각을 담은 글이다. 그것은 「중추 계급과 사회」(『개벽』, 1921.7), 「소년에게」(『개벽』, 1922.11), 「민족적 경륜」(『동아일보』 1924.1.2-1.6), 1930년대 『동광』에 실린 논설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민족성을 개조하여 실력을 기른 다음 독립을 하자는 취지의 글이다.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이 글이 조선 총독부의 회유책에 응한 글, 혹은 임시정부에서 탈출하여 일제에 항복하는 반성문으로 보고 강력하게 비판을 한다. 물론 이 글에서 조선 민족을 ‘비사회적이고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겁이 많고 진실성이 없는’, 아주 ‘열등한 성격’을 지닌 민족으로 표현한 것이나 그러한 민족성 때문에 나라를 잃었으니 정신을 개조하여 우등민족이 되자는 것이나, 민족 지도자에 대한 봉사과 복종이 없다면 민족의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식민지사관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이재선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성의 부족한 취약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사회운동의 전개를 제기한 것’은 ‘민족에 대한 희망의 사상으로 꼭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다.⁴⁴⁾ 분명한 것은 춘원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민족을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사실이다. 이후에도 「인생의 향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춘원의 민족계몽운동은 집필활동을 통해서 지속되며, 「무정」에서부터 보여주었던 도산의 ‘정의돈수’를 통한 민주

기 위해 서둘러 귀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4) 이재선, 앞의 글, 25면.

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즉 유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⁴⁵⁾ 최선을 다한다. 이에 대해 방민호 교수는 이광수의 『무정』의 사상이 '타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슬픔 없는 세계로서의 조선을 겨냥한 것이며, 그 원천은 안창호의 것으로 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⁴⁶⁾

춘원은 이 시기에 『선도자』(『동아일보』 1923.3.27-7.17, 연재 중단), 『허생전』(『동아일보』 1923.12.1-1924.3.21), 『금강산유기』(시문사, 1924), 『재생』(『동아일보』 1924.11.9-1925.3.11, 신병으로 연재 중단, 4.1-9.18), 『춘향전』(『개벽』 1925.9.30-1926.1.3), 『마의태자』(『동아일보』 1926.5.10-1927.1.9), 『단종애사』(『동아일보』 1928.11.31-1929.12.11), 『혁명가의 아내』(『동아일보』 1930.1.1-2.4), 『사랑의 다각형』(『동아일보』 1930.3.27-10.31), 『충무공유적순례』(『동아일보』 1930.5.21-6.8), 『삼봉이네 집』(『동아일보』 1930.11.29-1931.4.24), 『무명씨전』(『동광』 1930.3-6, 연재 중단), 『이순신전』(『동아일보』 1931.6.26-1932.4.3), 『흙』(『동아일보』 1932.4.12-1933.7.10), 『유정』(『조선일보』 1933.10.1-12.31), 『그 여자의 일생』(『조선일보』 1934.2.18- 1935.9.26), 『이차돈의 사』(『조선일보』 1935.9.30-1936.4.12), 『애육의 피안』(『조선일보』 1936.5.1-12.21), 『그의 자서전』(『조선일보』 1936.12.22-5.1) 『공민왕』(『조선일보』 1937.5.28-6.10, 연재 중단) 등을 집필하였다.

『선도자』는 111회를 연재하던 중 도산의 인물전이라는 이유로 총독부의 강요로 연재가 중단되었고, 『삼봉이네 집』은 일제의 토지 수탈, 민족 자본의 해체, 만주의 공산주의 운동 등을 다루었다고 하여 1935년 총독부로부터 출판 불허 판정을 받았다.⁴⁷⁾ 『무명씨전』은

45) 안창호,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情誼敦修의 의의와 요소』, 『동광』, 1926.1, 29-30면.

46) 방민호, 『무정 독해의 국면들과 무정·유정의 사상』, 앞의 책, 64면.

47) 송현호, 『『삼봉이네 집』에 나타난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앞의 책.

이갑을 모델로 하여 쓴 인물전이라는 이유로 총독부의 강요로 연재가 중단되었고, 『공민왕』은 14회를 연재하고 동우회사건 관련자로 피검되어 연재가 중단되었다. 연재된 작품 중에도 문제가 될 만한 작품이 상당수이다. 신병을 이유로 연재를 중단했다가 다시 연재한 작품도 있다. 춘원은 일제의 탄압에도 왜 끊임없이 글을 써야 했는가? 그에게 문학이란 무엇이었던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마리는 1931년 동광에 발표한 『여의 작가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내가 소설을 쓰는데 첫째 가는 목표가 '이것이 조선인에게 읽혀지어 이익을 주려'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나는 내 소설이 조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기를 바라지 아니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읽을 것을 가지지 못한 이는 조선인이요, 또 내가 조선인인 까닭이다.

--- 중략 ---

아무려나 나는 글을 쓸 때에 반드시 조선인- 그 중에도 나는 나와 같이 젊은 조선의 아들 딸을 염두에 둔다. 나는 붓을 들고 종이를 대할 때 그들 젊은 조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통정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깨닫는다.

---중략---

나는 사실주의 청년시대에 청년의 눈을 뚫는지라 내게는 사실주의적 색채가 많다. 내가 소설을 '모시대의 모방면의 충실한 기록'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무정』을 일로전쟁에 눈뜬 조선, 『개척자』를 합병으로부터 대전전까지의 조선, 『재생』을 만세운동 이후 1925년경의 조선, 방금 동아일보에 연재 중인 『군상』을 1930년대의 조선의 기록으로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이 때문인가 한다. 이 줄렬한 시대의 그림이 어느 정도까지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감정의 고민상을 그렸는지는 내가 말할 바가 아니다. 내 의도가 그것들의 충실한 묘사에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흔히 내 작품 중에 나오는 인물들의 무위 무기력함을 조소

하는 비평을 들었거니와 그러한 비평을 들을 때에 나는 혼자 고소를 불금한다. 왜 그런고 하면 내가 유위 유기력한 인물을 그리려던 의도가 무위 무기력하게 되었다면 그 비평이 아프기도 하련마는 내가 그리려던 의도가 정히 그러한 무위 무기력한 인물이었으니까, 비평가들의 조소는 도리어 내 작품 중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니 내가 고소 아니하고 어찌하랴

--- 중략 ---

내가 소설을 쓰는 근본 동기도 여기 있다 민족의식, 민족애의 고조, 민족운동의 기록, 검열관이 許하는 한도의 민족운동의 찬미,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선동, 이것은 과거에만 나의 주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나의 일생을 통한 것이라 믿는다.⁴⁸⁾

1931년에 쓴 글이어서 검열을 의식하고 썼을 것임에도 비교적 자세히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춘원이 일제의 탄압에도 끊임없이 글쓰기를 한 이유는 ‘읽을 것을 가지지 못한’ 조선인 그 중에도 ‘나와 같이 젊은 조선의 아들딸을 염두에’ 두고 ‘조선인에게 읽혀지어 이익을 주려’ 하는 것이고, 자신이 소설을 쓰는 근본 동기가 ‘민족의식, 민족애의 고조, 민족운동의 기록, 검열관이 許하는 한도의 민족운동의 찬미’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1938년 대일 협력 전까지는 검열을 의식하여 자신의 민족의식을 애써 감추기도 하고 검열을 의식하지 않고 집필을 하다가 연재가 중단되거나 출판 불허 판정을 받기도 하면서 민족담론의 글쓰기를 계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글쓰기에서는 민족담론은 발견할 수 있어도 국가담론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귀국 직전 국내의 저명인사들이 임시정부에 협조해주지 않은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낸 점, 귀국 후 도산 안창호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수양동우회 활동을 계속한 점, 해방 후 김구의 『백범일지』 간행에 관여

48) 『이광수전집』 10, 우신사, 1979, 460-462면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임시 정부를 염두에 두고 국권 회복이나 독립에 대해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조선에 정주하면서 일본의 감시를 받고 검열을 의식하여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5. 결론

본고는 춘원이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글쓰기를 했으며, 그에게 민족이나 문학은 무엇이었는지를 그의 삶과 연계시켜 살펴본 글이다. 문학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천착했던 흔적은 그의 삶과 글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가 『文學이란 何오』에서 던진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문학의 위기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유효하다.

춘원은 제1차 일본 유학 중에 일본인들로부터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차별받고 멸시받으면서 자신과 조선인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글쓰기에 전념했다. 이 시기의 글 가운데 『혈누 - 희랍인 스파타쿠스의 연설』, 『옥중호걸』, 『사랑인가』는 춘원의 당시의 행적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이들에서 춘원은 자신과 철창에 갇힌 호랑이 그리고 로마의 검투사를 동일시하면서 자유롭게 평등하고 사랑받으려는 욕망을 글쓰기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춘원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글쓰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춘원은 오산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남강의 고향인 용동의 모범촌 건설에 헌신했다. 학교를 그만두고 블라디보스토크와 치타에 머물던 춘원은 억압당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는 조선인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농촌계몽운동이 필요함을 절감하며, 조선인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모범촌을 조성할 기획을 한다. 이 시기에 문학이

란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하면서 쓴 글로는 『文學이란 何오』와 『무정』이 있다. 『文學이란 何오』에서 민족문학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글 쓰기에 전념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춘원은 도산의 사상을 수용하여 『무정』을 발표하면서 제국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애썼다.

1921년 4월 조선으로 귀환한 춘원은 글쓰기에 전념하여 수많은 글들을 신문과 잡지에 게재하였다. 춘원이 글쓰기에 전념한 이유는 ‘읽을 것을 가지지 못한’ 조선의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조선인에게 읽혀지어 이익을 주려’ 하는 것이고, 자신이 소설을 쓰는 근본 동기가 ‘민족의식, 민족애의 고조, 민족운동의 기록, 검열관이 許하는 한도의 민족운동의 찬미’라고 밝히고 있다. 1938년 이전까지는 검열을 의식하여 자신의 민족의식을 애써 감추기도 하고 검열을 의식하고 집필했지만 연재가 중단되거나 출판 불허 판정을 받기도 하면서 민족담론의 글쓰기를 계속한다. 그런데 이 시기의 글에서는 민족담론은 발견할 수 있어도 국가담론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임시 정부를 염두에 두고 국권 회복이나 독립에 대해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조선에 정주하면서 검열을 의식하여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춘원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그의 삶과 연계시켜 일관되게 고찰하려면 1938년 대일 협력 이후 그의 문학 형식이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고, 후일의 숙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자료

『사랑인가』, 『문학사상』, 1981.2, 445면

『이광수 전집』 1-10,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별권, 우신사, 1979.

2. 단행본

김용직, 『시각과 해석-한국현대시 이렇게 본다』, 2014.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 단국대출판부, 2009.

김원모, 『자유꽃이 피리라』, 철학과현실사, 201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①, 한길사, 198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②, 한길사, 198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③, 한길사, 1986.

류보선, 『한국문학의 유령들』, 문학동네, 2012.

마샬 맥루언, 박정규 역, 『미디어의 이해』, 박영률출판사, 1997.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의 이주담론 연구』, 태학사, 2017.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4.

하타노 세츠코,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최주한 역, 푸른역사, 2016.

한계진 박호영 송현호, 『문학의 이해』, 민지사, 1987.

Jacques-Marie-Émile Lacan, Livre XXIII: Le sinthome 1975-1976. Paris: Seuil, 2005.

3. 논문

방민호, 『무정 독해의 국면들과 무정·유정의 사상』, 『춘원연구학보』 10, 2017.6, 43-68면.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서은혜, 『이광수의 상해 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스트성』, 『춘원연구

- 학보』 9, 2016.12, 223-256면.
- 서은혜, 『이광수 소설의 ‘암시된 저자’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24면.
-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65, 2017, 111면.
- 송현호, 『「삼봉이네 집」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춘원연구학보』 9, 2016.12, 165-188면.
- 송현호, 『영상매체의 발전과 소설의 변화』, 『현대소설연구』 11, 1999, 27-42면.
- 송현호, 『춘원의 「사랑인가」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한국학보』, 2017.2, 3-29면.
-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2016.6, 23-42면.
- 송현호, 『한국근대소설론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1.
-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북』, 2016.10, 726-735면.
- 윤홍로, 『「흙」과 민족경생력』, 『춘원연구학보』 2, 2009, 53-55면.
- 윤홍로, 『춘원의 용동체험과 글짓기 과정』, 『춘원연구학보』 3, 2010, 9-69면.
- 윤홍로, 『이광수의 치파에서의 체험과 그의 작품배경』, 『어문연구』 10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0. 3, 219-235면.
- 이언홍, 『「유정」에 나타난 이주와 ‘정(情)’의 연구』, 『춘원연구학보』 8, 2015, 109-134면.
- 이재선, 『이광수 문학론의 원천과 형성』, 『춘원연구학보』 4호, 2011, 12-24면.
- 장미영, 『소설과 미디어콘텐츠의 상호매체성』, 『국어어문학』 52, 2012, 266면.
- 최선호, 『「무정」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춘원연구학보』 8, 2015, 83-108면.

「Abstract」

What is literature
—focusing on the life
and literature of Chunwon—

Song, Hyun-Ho

This paper examines how Chunwon wrote to be in peace and what the nation and literature meant to him, by associating those aspects with his life. Traces of his endless agony and pursuit are shown in his life and work; His question in *What is Literature* is relevant even today when crisis of literature is continuously discussed.

While he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s a Korean during his first stay in Japan for his study, he focused on writing reflecting on himself and his identity as a Korean. During this time he wrote *Tear of Blood: Speech of Spartacus, the Greek, Okjunhogeol* and *Is This Love?*, through which one can take a glimpse of his life and thoughts at the time. In his works, Chunwon empathized himself with a tiger behind bars and a Roman gladiator to express his desire for freedom, equality and love. It is likely that Chunwon wrote to heal his broken heart.

As he worked as a teacher at Osan School, Chunwon was dedicated to building a model village in his hometown, Yong-dong. After he left the school, he stayed in Vladivostok and Chita, where he saw Korean immigrant workers who were oppressed and forced to continue unfair living. Chunwon realized dire need for enlightenment movement for

rural communities and developed a plan to build a model village to prevent Korean labor force from leaving the country to make a living. *What is Literature* and *Mujeong* were written during this time when he seriously contemplated the significance of literature. In *What is Literature*, he speaks about his reason for writing, which is to bequeath the national literature to the next generation. Chunwon adopted Dosan's visions and published *Mujeong*. He committed himself to growing national competence to fi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April, 1921, he returned to Korea, focused on writing again and published his works on newspapers and magazines. Chunwon focused on writing because he thought of young Koreans ‘who did not have things to read’ and wanted to ‘provide Korean with benefit through reading’. He said the reason why he wrote novels was to promote national consciousness, patriotism, recording of the national movement, praise on the national movement, but only to the extent that was allowed, and if he could, instigation. He said it was not only his past but also throughout his whole life. Until 1938, he was much concerned for the censorship so that he tried to hide his national consciousness in his work, yet he had to stop publish serial stories or some of his works was not allowed for publishing. But he continued to write the discourse on nation. While the discourse on nation was found in his writing at the time, the discourse on country was not easily found. It is possible that he intentionally avoided comment on recovery of the national sovereignty or independence conside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he was conscious of censorship during his stay in Korea.

Key words: peace, immigration, independence, national



consciousness, writing

투 고 일 : 2017년 7월 14일 심 사 일 : 2017년 7월 20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